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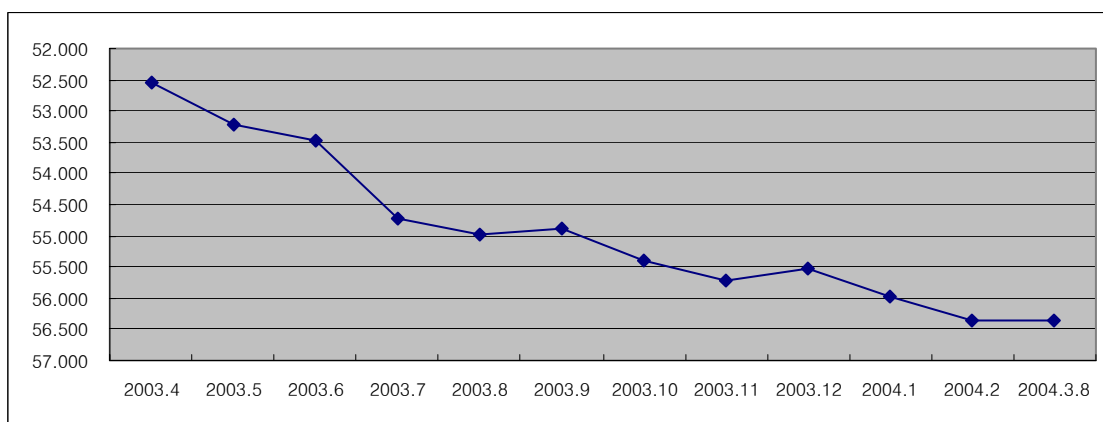
필리핀, 대선을 앞두고 환율불안 지속

국별조사실

□ 하락세가 지속중인 페소貨

- 필리핀 페소貨는 정국 불안과 만성재정적자 문제 등으로 1990년 초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음.
- 최근에는 작년 7월의 군내 소장파 주도의 쿠데타 발생에 따른 정국 불안과 금년 대선을 앞두고 환율 불안이 지속되어 **2004년 1월 29일 달러당 56페소**를 기록하였으며, **2월 20일에는 달러당 56.400페소**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3월 8일 기준 56.335를 기록 중임)

〈그림〉 최근 필리핀 페소화 대비 환율 동향^{주)}



주: 월말 달러당 환율 기준임

자료: Bloomberg

□ 대선 앞두고 환율 불안 추세 지속될 듯

- 지난 7월 군내 소장파 주도의 쿠데타 발생 후 페소貨는 8~10월 동안 달러당 54.5~55.5페소 범위를 유지하였으나 11월 24일 재무부 장관의 사임발표¹⁾로 다시 하락하여 3일후 Moody's의 등급하향 조정 경고와 영화배우출신인 Poe가 대선후보로 나선다는 발표로 달러당 55.85페소를 기록하며 당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이후 행정 및 국정운영 경험이 전무한 Poe 후보가 빈곤층의 압도적 지지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자, 이에 대한 불안가중으로 페소貨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음.
- 인시드으 마야 Poe후보가 대투려오른 다서되 경우 지난 Estrada 정권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 재현과 이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필리핀의 대외신인도 저하 등 향후 필리핀 전망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또한, 이와 같은 환율불안이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 압력, 외국인투자 감소, 외채상환 부담 증가, 정부 재정적자 확대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환율안정을 위한 금리인상도 경제 회복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대선은 확실한 후보 없이 혼란 양상

- 금년 5월 10일로 예정된 금번 대선에서는 현 대통령인 Arroyo후보와 영화배우 출신인 Poe후보의 2자간 경선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초기에는 현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속에 Poe후보가 국민 대다수인 빈곤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Arroyo후보 보다 앞선 지지도를 보였음.

¹⁾ Camacho 前재무부장관은 Arroyo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 영입한 투자은행가 출신임. 취임후 몇 차례나 개혁적인 각종 세수증대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정치적 압력으로 시행되지 못하자 사직발표를 하여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음.

○ 그러나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²⁾ Arroyo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여 Poe후보와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Poe후보의 대선후보 적격성 여부를 놓고 대선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Arroyo후보가 다수표 획득을 통한 확실한 대선 승리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Poe후보 지지자들의 반발 속에 필리핀이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현재 Poe후보가 필리핀 출신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선출마 자격 여부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임. 이에 대하여 Poe후보 지지자들은 Arroyo후보측에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맹렬히 비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Arroyo후보가 승리를 거둔다하더라도 Poe후보측이 순순히 결과에 승복할지 불투명하며, 이에 따라 향후 정국 운용에 있어서도 현재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전문연구원 류재욱 (☎3779-6678)
E-mail : jaeukkor@koreaexim.go.kr

²⁾ 3월 3일 필리핀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Social Weather Station(SWS)는 지난 2월초의 여론조사에 비해 Arroyo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3.1포인트 상승한 31.8%를 기록하였고, Poe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7포인트 하락한 30.5%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바 있으며,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Pulse Asia에서도 Arroyo후보가 31.9%, Poe후보가 31.7%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음.